

전주시 취업박람회 개최 293명 채용

90여개 기업 온·오프라인 통해 참가...직접채용 40개 기업 현장 면접

전주시가 청년 일자리창출과 구직자 취업자원을 위해 날 벗고 나섰다. 전주시는 12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6 전주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현장면접 등을 통해 총 293명의 시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 5년째를 맞은 그랜드 취업박람회는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주교통노동자청이 구직자들에게 현장면접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시책사업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올해 행사는 현장면접을 통해 취업이 결정되는 일

자리행사로 꾸며져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있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90여개 기업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채용에 나섰으며 이 가운데 40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진행해 직원들을 채용했다.

구직자와 일반시민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연령계층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채용 업체를 도내로 확장했다.

또한 구직 수요가 많은 청년층 대상

기업 30개 업체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중장년층 10개 업체도 현장 채용관을 운영하는 등 행사의 효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지원관 30여개, 전북은행 등 관심 기업·기관들이 참여한 채용설명관 3개, 미래먹거리 신산업인 탄소와 3D프린팅, 드론 등의 특별전시관 등 총 70여 개 부스가 다채롭게 구성돼 박람회의 품격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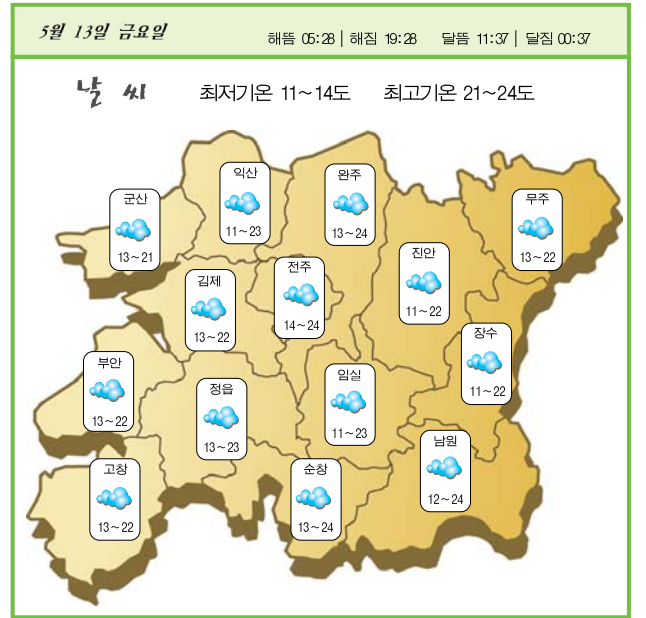
이날 구직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경품 이벤트 추첨 등 다양한 행

사도 함께 진행됐다.

안병수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많은 일자리로 활기가 넘치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취업관련 시정 및 정책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오늘과 같이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그랜드 취업박람회는 지역 고용 유관기관들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전주시민들을 위해 힘을 합쳐 추진한 행사로 전북중기청과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관내 대학,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취업관련 모든 기관이 함께 하는 행사로 마련됐다.

/김영재기자



전북경찰청, 도내 15개 지역대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12일 스쿨존 교통안전전을 위한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도내 15개 지역 243개 학교에서 활동중인 녹색어머니 2천여 명을 대표하는 각 시군 녹색어머니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힘쓴 녹색어머니 연합회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신입 임원진 위촉, 스쿨존 교통안전 대책 보고 및 토론회 순으로 이뤄졌다.

윤미연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어린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면 매우 안타까웠다"며 "도내에서 어린이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쿨존 보행지도 등에 솔선수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진수기자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2일 전북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출근하는 교수 및 대학 구성원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스승의 은혜 행사를 열었다.

전주비빔밥축제, 이탈리아 포럼 참석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세계 14개 도시가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비빔밥축제 참가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 전주비빔밥축제 세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지난 8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열린 음식창의도시 포럼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18개 음식창의도시 중 개최도시를 포함한 14개 도시가 참석,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성화방안을 위해 많은 토론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조봉업 부시장이 전주, 한국음식의 중심(Jeonju, the Origin of Korean Food)을 주제로 한 발표에 나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특징과 전주음식의 육성전략, 비빔밥축제 홍보, 2016 전주음식창의도

시 포럼에 대해 소개했다.

전주음식의 특징을 담은 주제발표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음식창의도시 관계자들은 대부분 전주포럼 및 비빔밥축제 등에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노르웨이 베르겐과 터키 가지엔테프, 일본 추르오카 등은 전주시와의 음식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으며, 전주포럼과 동일 기간에 열리는 비빔밥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포럼에서 세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들은 전주시의 음식발전 전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창의도시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포럼 개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김영재기자

교사 근무평가 최고-최저간 상여금 차이 168만원으로

교육부, 기존 최소 50% 에서 70%로 확대...교원단체 '갈등 부추겨' 반발

정부가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 간 상여금 차이를 168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객관적 평가지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 상여금 격차를 확대하면 교사 간 갈등만 부추킨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교사 간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기존 최소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최근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근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사와 최저등급을 받은 교사 간 상여금 차이는 168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 교사 중 상위 30%에 해당하는 S등급은 442만 6500원, 상위 30% 초과 ~70% 미만인 A등급은 346만 530원,

하위 30%인 B등급은 274만 386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침을 접한 교원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객관적 평가지표 없이 성과 상여금 차이만 벌려 놓는 것은 교사 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이번 지침에 교사들이 성

과 상여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거나 한 사람에게 몰아줄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성과 상여금은 개인에 귀속된 재산으로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 자유"라면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장애인 대기업 취업 여전히 '그림의 떡'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업 등 이른바 고소득 일자리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실적 현황이 낮은 민간기업 604곳, 공공기관 20곳, 국가 자치단체 9곳 등 총 633곳의 명단을 12일 확정·공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명단을 공표하게 돼 있다.

이번에 공표된 명단에 따르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대기업의 경우 현대자동차, 한화, 삼성, 두산, 에스오일, 동국제강 등 6곳을 제외한 SK, LG 롯데 등 24개 대기업의 계열사 64곳이 포함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대기업은 포스코(7곳), 동부(5곳), GS·현대중공업·한진·신세계·CJ·금호아시아나(각 4곳)순이었다.

/박용주기자

국립승리사 박물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